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LISTENERS
가제 : 소리를 듣는 사람들
저자 : Jordan Tanahill
출판사: Fourth Estate
발행일: 2021년 8월 5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문학 소설

*** 음모론과 딥페이크로 인해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시대, 어느 날부터 남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된 한 여자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

주인공 클레어 데본은 한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으며, 지금은 집 근처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ESL 야간 수업을 가르친다. 그녀는 사범대학에 다니던 시절 남편을 만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중산층의 삶의 여유를 누리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 곁에 누워 있다가 의문의 소리를 듣게 되며 혼란에 빠진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으며, 병원엘 가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오직 자신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소설은 5년 전 작가가 캐나다의 한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정체불명의 윙윙거리는 저주파 소리에 대한 기사와 마을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채 기이한 미제 현상으로 남아 있으며, 이 소리를 일종의 영적 계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존재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경험을 통해 논리와 질서의 경계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오랜 욕망에 관한 소설이다.

어느 날 클레어는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누군가가 아주 낮은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클레어는 폴에게 그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지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처음 침대에서 그 콧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클레어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폴이 한 말에 더 충격을 받았다. 그 날 폴은 갑자기 무신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와 윤리 및 신앙에 대한 강렬하고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던 지난 식사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은 클레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아니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클레어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었고 가부장적 신앙

체계에 대한 오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폴을 처음 만났을때 클레어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 난민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평범한 건축 노동자였다. 클레어는 그런 그에게 환경 문제, 페미니즘 이슈,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소개했고 그가 가진 보수적인 신념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한편 클레어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그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소리도, 이명도 아니며 정확히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임을 깨닫는다. 클레어는 그 날 이후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렸고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너무 컸었던 나머지 불쑥하면 코피가 났다. 그리고 남편과 딸을 비롯한 그녀 주변 사람들은 소리 때문에 미쳐가는 클레어의 행동에 대해 지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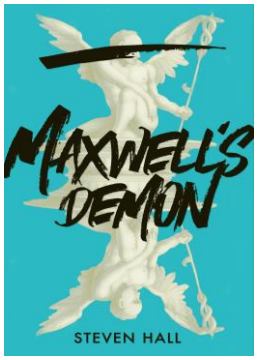
결국 클레어는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낸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이 소리를 듣기 시작한 무렵 집 근처에 새로운 기지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이웃들 귀에는 그 소음이 들리지 않았지만, 클레어는 소리의 원인이 기지국 때문이라고 믿는다. 며칠 후 클레어는 다시 수업에 복귀했고 카일이라는 학생이 그녀를 찾아온다. 그는 토마스 만의 소설과 관련해 정통 교리가 아닌 영적 인본주의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는데 클레어는 단번에 그 역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눈치챈다. 클레어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묻자 그는 얼마 전 사고로 머리를 맞은 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상한 콧노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클레어는 이제서야 자신만이 그 소리를 듣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카일은 쿠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상한 이 소음 공격 때문에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으며 자신과 클레어가 같은 방법으로 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클레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 받는 기분이 들었고 카일에게 묘한 감정까지 느낀다.

시간이 흐르면서 클레어와 카일은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점점 가족과 동료로부터 소외되던 중 역시 그 소리를 듣는 한 이웃 집단을 만나게 되고 점차 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과연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과 무관한 이론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집단의 광기와 음모론에 관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던 타나힐(Jordan Tannahill)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작가이다. 그의 연극 중 두 편은 캐나다 최고의 문학상인 주지사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전작 소설 LIMINAL은 CBC Books 선정 2018년 최고의 캐나다 소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제목 : MAXWELL'S DEMON
가제 : 이상한 가을
저자 : Steven Hall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21년 2월 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판권 계약
* "영화나 연극,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신나게 해준 책" - 살만 루시디, 마거렛 애트우드,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등 거장들의 책을 출판한 'Kinneret Zmora'사의 출판인 지브 루이스
* "메멘토와 매트릭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심리 스릴러" - 「가디언」
* "당신이 여태껏 읽었던 그 어떤 소설과도 다른 이야기" - 「인디펜던트」

실패한 소설가 토마스 퀸은 자투리 글이나 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작고한 그의 아버지는 생전 이름을 떨친 시인이자 언론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조수였던 앤드류가 쓴 밀리언셀러 미스터리 소설을 읽으며 언제나 그를 동경했는데, 앤드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상한 일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느 날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 의문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앤드류부터 찾아야 했다. 탐정 소설과 유령 소설, 철학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스터리 소설이자 소설에 관한 소설이다.

토마스 퀸의 아버지 스탠리 퀸은 유명 전쟁 특파원이자 시인으로 거의 집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언제나 아버지의 글과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곤 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다큐멘터리나 책에서 예전보다 더 자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토마스는 아버지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 후 토마스는 아버지와 점차 더 멀어지게 되었다. 성인이 된 토마스는 소설가가 되었고 드디어 소설 한 권을 완성한 후 아버지 앞으로 복사본을 보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후로 다시 7년이 흘러 토마스는 책장을 뒤지다가 우연히 자신의 첫 작품 바로 뒤에 있는 '큐피드 엔진'이라는 소설을 발견한다. 이 책은 평소에 절대로 다른 작가의 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스탠리가 극찬한 책이었다. 그 책의 저자는 앤드류 블랙으로 스탠리의 조수이자 비밀 제자이며 명백한 상속인이었는데 그는 책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언론사와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고 책에도 자신의 사진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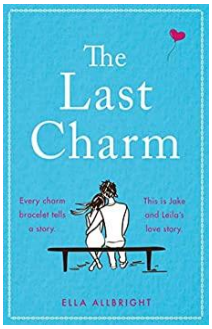
자신의 대략적인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작가였다.

현재 토마스는 연구팀과 함께 세계 반대편의 작은 섬으로 간 아내 없이 홀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음성 메시지를 받는다. 토마스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스탠리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스탠리는 메시지로 '토마스 거기에 있니? 베들레헴의 천사들은 왜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라는 이상한 질문을 남겼다. 토마스는 너무 놀라 다시 음성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지만 그 메시지는 이미 누군가가 삭제한 상태였고 그는 기지국에 전화를 걸어 최근 자신에게 걸려온 수신 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사실 토마스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고 스페인에서 열린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 그랬듯 아버지를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앤드류의 소설을 탐독하며 소설의 주인공인 냉혹한 살인자 모리스 움버에게 또다시 매료되었다.

<큐피드 엔진>은 흰색 페도라 없이는 결코 집을 나서지 않는 멋진 남자인 모리스 움버가 손에 피가 흐르는 칼을 쥔 채 형사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음을 알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소설 중반에서 수사관인 비현실적 도덕주의자 '맥스웰 클레버'는 모리스의 사건을 포함한 다른 일련의 살인 사건들이 더 강력하고 무서운 음모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밝혀낸다. 토마스는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등에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곤 했다. 토마스는 같은 소설가로서 어떻게 앤드류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냈는지 늘 궁금했다. 토마스는 어쩌면 모리스가 앤드류의 또다른 어두운 자아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그는 하얀색 페도라를 쓰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는 <큐피드 엔진>에 등장하는 모리스 움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서는 토마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직후 앤드류의 책을 맡고 있는 출판사 직원이 토마스를 찾아왔는데 현재 앤드류가 새로 계약한 출판사와 판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큐피드 엔진>의 다음 시리즈인 <맥스웰의 악마>가 출판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앤드류의 작가 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였다며 토마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마스는 계속해서 그 모리스 움버를 똑닮은 한 남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자신의 과거와 앤드류의 과거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과 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된다. 열역학 제 2법칙, 돈 키호테가 뒤섞인 묘한 조합 이론을 통해 책을 읽는 내내 독자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독특한 미스터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티븐 홀(Steven Hall) 전작 『The Raw Shark Texts』는 30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이며, Somerset Maugham Award를 수상하고 Arthur C. Clarke Award 후보에 올랐다. 또한 베스트셀러 비디오 게임 Battlefield 1의 수석 작가로 Writer's Guild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2013 년 그는 Granta 선정 Best of Young British Novelists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제목 : THE LAST CHARM
가제 : 라스트 참 - 팔찌에 엮은 사랑 이야기
저자 : Ella Allbright
출판사: One More Chapter
발행일: 2020년 8월 2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조조 모예스의 『Me Before You』와 Josie Silver의 『One Day in December』의 팬이라면 반드시 사랑할 소설!**
*** "아름다운 결말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로맨틱 러브 스토리" - 『A Postcard from Italy』의 저자, 알렉스 브라운**

2002년, 1년 전 라일라의 어머니는 팔찌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라일라와 아버지를 떠났다. 그 팔찌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그 팔찌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준 열한 번째 선물이자 이별 선물이었다. 그 후 라일라는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빠의 일 때문에 엄마의 흔적과 소중한 추억이 남아 있는 집마저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한편 라일라보다 2살 많은 소년 제이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자동차 안에서 차창에 비치는 괴물 같은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제이크는 구개 파열(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선천성 기형)에 남들과는 다른 눈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이크의 아버지는 제이크가 그런 외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모두 제이크의 어머니 탓이라고 말했고 언제나 제이크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그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때문에 제이크는 언젠가 커서 반드시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새집에 도착한 제이크는 자기가 쓰기로 한 침실이 여자 아이가 쓰던 침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방을 둘러볼 시간도 없이 또 아버지에게 맞았고 낯선 길을 따라 도망치던 중 한 승합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딸기 냄새가 풍기는 한 소녀와 마주쳤고 인사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제이크가 새로 이사온 집에 살았던 소녀였고 그녀는 제이크의 입에 있는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묻고는 금방 아빠에게로 가버렸다.

다음 날 제이크는 이사 가기 전 근처 할아버지 댁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는 라일라를 찾아가 라일라가 집에 남기고 간 책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라일라는 제이크에게 그 책을 읽어도 좋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라일라가 이사하기 전 일주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그 후 2년 반 동안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 안 제이크는 계속해서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에게 맞으며 지냈고 옷도 몸도 다 상한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곤 했지만 유일하게 라일라의 할아버지 레이만큼은 그를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대했다. 종종 제이크는 레이의 집에 찾아가 그의 일을 도와주었고 레이는 제이크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제이크의 어머니와 제이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라일라를 만나 그녀의 열세 살 생일을 맞아 함께 파티를 열었다. 제이크는 라일라의 변한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지만 라일라는 어머니가 얼마 전 주소도 없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에 더욱 비뚤어졌고 오랫동안 제이크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 몸져 눕는 바람에 라일라는 또 다시 익숙해진 곳을 떠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제이크를 만난다. 라일라는 이전과 달리 제이크를 보며 새로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할아버지 집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어느 날 제이크의 아버지는 레이의 집으로 쳐들어와 강제로 제이크를 데리고 나갔고 라일라의 가족이 그들을 쫓아갔을 때 제이크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청소년이 된 라일라는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고 일부러 다른 남자 아이와 사귀며 제이크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마음은 물론 그의 마음을 시험했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제이크는 언제나 라일라가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뚝심 있게 그녀를 기다렸다. 성인이 된 라일라는 어느 날 제이크와 자신의 추억이 담긴 그 팔찌를 잃어버리게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팔찌를 발견한 사람을 수소문 하던 중 그 팔찌를 발견했다는 '캐틀린'이라는 여자의 이메일을 받았다. 하지만 케이틀린은 라일라가 그 팔찌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팔찌와 얽힌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라일라는 그녀에게 자신과 제이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오랜 인연과 사랑을 통해 점차 마음의 치유를 얻어가는 두 사람의 사랑과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라 올브라이트(Ella Allbright)는 자신의 고향 도싯(Dorset)을 배경으로 여성 소설을 쓰고 있다. 'Nikki Moore'라는 가명으로 인기 소설 『#LoveLondon』 로맨스 시리즈를 썼으며, 이 외에도 그녀의 수많은 책들이 Kobo의 Top 100 단편 소설 차트와 Amazon UK 베스트셀러 Holiday 차트의 Top 20에 올랐고 2018 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소설 모음집을 출간했다.

제목 : DON'T EVER FORGET
가제 : 망각의 늪
저자 : Matthew Farrell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분량 : 351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아마존 킨들 스릴러 분야 1위! 700,000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것이다" - 「커커스 리뷰」**
*** "흥미로운 크라임 노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서사는 놀랍고 충격적인 영역을 파고들어 끔찍한 결말로 달려간다" - 「퍼블리셔 위클리」**

수사관 수잔 아들러는 어느 날 다른 주에서 복무 중이던 한 경찰관이 살해 당한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다. 그녀는 수사를 위해 예순 여덟 살인 노인에 알츠하이머 환자인 제임스 다빌과 함께 실종된 간호사 레베카 힐의 차를 추적하고 노인의 집에서 미제 사건들과 관련된 불길한 증거물들을 확보한다. 수잔은 곧 문제의 그 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차례차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친구이자 법의학 전문 수사관인 리암 드와이어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제임스 다빌은 그저 기억을 잃어가는 불쌍한 노인이자 무고한 희생자인 것일까, 아니면 끔찍한 비밀들을 숨기고 있는 악인일까?

어느 밤 신디는 도로를 달리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제지를 당한다. 경찰은 신디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신디는 차주는 자신의 친구 레베카 힐이며 데이트를 위해 이 차를 빌렸고 지금은 망친 데이트 때문에 일찍 돌아가는 길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곧 신디의 손과 바지에 묻은 피를 발견했고 그 피에 관해 추궁했다. 그러자 신디는 혹시라도 경찰이 차 트렁크에 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될까 두려워 어떤 말을 둘러대야 할지 망설였다. 그리고 그 때 경찰 뒤로 트레버가 나타나더니 타이어를 교체하는 기구로 짓이기듯 잔인하게 경찰을 폭행해 죽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레베카 힐의 자동차를 훔친데다 하루 밤 사이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두 사람은 경찰들이 시신을 찾은 다음 실종된 레베카와 제임스에 대해 알아내기 전 최대한 멀리 달아나기로 했다. 그들은 미스터리에 싸인 인물인 '하겐'이라는 작자의 명령대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임스가 죽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트레버가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한 복수와 가족의 안전뿐이었다. 그들은 제임스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계획이었다.

쌍둥이 아이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수잔은 원래라면 집에서 아이들을 남편과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푹 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경찰이 간 밤에 살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바로 차주인 레베카 힐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 곳에는 레베카도

없었고 얼마 지나서야 레베카 힐이 자신이 일하는 물리 치료 센터에서 환자 제임스 다빌이라는 노인과 같은 시기에 실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곧 수잔은 제임스 다빌의 빈 집을 수사했고 쑥대밭이 된 집안 침실 근처에 떨어져 있는 혈흔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현관이나 창문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다만 침실과 집 아래에 있는 꽤 넓은 지하실에서 레베카의 혈흔과 의문의 치아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수잔은 혹시 레베카가 간경변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와 지하실에 숨겨져 있던 노인의 돈을 갈취한 후 노인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간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

그 시각 제임스 다빌은 머리 뒤 쪽에 통증을 느끼며 레베카가 아닌 신디와 트레버에게 납치되어 그들의 은신처의 한 지하실에서 눈을 떴다. 그는 시야가 뚜렷해지기도 전에 방 끝에 너덜너덜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소년 소녀들의 유령을 보았다. 그들의 피부는 수십 년간에 걸쳐 부패된 바람에 너무나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이조차 가늠할 수 없었지만 제임스에게는 그들의 얼굴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분명 제임스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임스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며 허공에서 손을 휘저었다. 바깥으로 도망친 제임스는 그 곳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신디를 만났지만 아무 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한편 신디는 하겐이 제임스가 자신과 트레버의 여동생들은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 저지른 죄를 소상히 밝히지 않고 신디도 트레버도 모르는 의문의 동기로 그를 그저 죽여 버리기로 한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신디는 날마다 제임스에게 그가 죽인 희생자들인 소니아, 마커스, 보니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그들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물었다.

얼마 후 수잔은 법의학자 리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동료들과 함께 코네티컷에 버려 있던 레베카의 자동차를 발견했다. 차 트렁크에는 제임스의 침대 커버에 둘러 싸여 버려져 있는 레베카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녀의 손 안에는 또 다른 치아가 숨겨져 있었다. 곧 수잔은 제임스의 주치의로부터 그가 '보니'와 '소니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수잔은 집에서 제임스의 집에서 발견된 치아가 1989년에 하교 길에 실종된 후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아 있는 보니라는 아이의 치아라는 것을 알아낸다. 수잔은 제임스가 젊은 시절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으며 그가 맡았던 학교 연극반 아이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 모든 일들에 레베카의 남동생 데이비드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다. 과연 수잔은 또 다른 죽음들을 막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까? 희미해지고 있는 노인의 불완전한 기억과 어둡고 끔찍한 과거 사건들 속을 파헤쳐 가는 도중 벌어지는 섬뜩한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매튜 파렐(Matthew Farrell)은 가족과 함께 뉴욕시 외곽의 허드슨 밸리에 살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A BRIEF HISTORY OF LIFE!
가제 : 생명에 관한 짧고 굵은 역사
저자 : Jennifer Margulis
출판사: Fourth Estate
발행일: 2021년
분량 : 약 182 페이지
장르 : 과학, 역사

*** '공생진화론'과 같은 획기적인 가설로 생물학계를 놀라게 했으며 세포생물학과 미생물 진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19회 수상하며 지구 시스템 과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학자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가 밝혀낸 과학적 진실과 여성 과학자로서의 삶에 대해 그녀의 딸이 직접 쓴 책**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의 항성 주위에 다른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의 매일 관측을 하면서 항성 주변에 다른 행성들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임을 늘 목격하고 있다. 아마 이 우주에는 수조 개의 다른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행성과 그에 맞는 화학 성분,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태양과 행성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도 너무 멀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삶을 기적, 즉 생명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우리 행성에는 뭔가 고유의 특별함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행성에도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 제니퍼 마굴리스는 '여성' 과학자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신의 어머니 린 마굴리스를 회상하며 그녀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밀도 높은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린 마굴리스 자신은 물론 저자 역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1년 11월 린 마굴리스는 그 전 주에 멕시코에서 수백 명을 상대로 강연을 했고 자녀들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표까지 사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11월의 어느 날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추천서를 쓰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행히도 그녀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곧 찾아올지도 모르는 마비 현상에 대해 두려워하며 딸인 저자를 유산 집행자이자 법적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의 몸에 달린 생명 유지 장치 전원을 꺼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저자는 마침내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린 마굴리스는 그렇게 자연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연구물은 아직도 학계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는 적자 생존 논리를 뒤집고 협력과 공생만이 진화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과학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또한 그녀는 제임스 러브록과 함께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이아 이론을 발전시켰다. 마굴리스 박사의 발견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혁명적 사고를 촉발시켰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생물학뿐만 아니라 페미니즘과 사회 이론 관련 수업 현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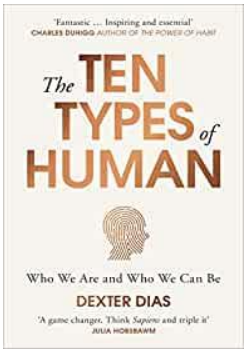
삶이 단순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녀의 생각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 업적은 언제나 급여 문제와 연구 실적 평가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머니의 과학적 연구 결과(미발표 내용 포함)를 바탕으로 지구상에서의 생명체들의 발전 과정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 어머니의 연구 내용과 업적을 바탕으로 딸인 저자가 직접 자신의 눈을 통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며 과학이란 무엇인지, 여성 과학자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과학 서적이다.

<목차>

머리말
1 장 : 촉촉하고 젊은 세상
2 장 : 최초의 생명체
3 장 : 최적의 생존 환경
4 장 : 생명의 그물
5 장 : 오리지널 테라포밍 (행성을 지구의 환경처럼 만드는 기술)
6 장 : 미생물의 마천루제
7 장 : 비전을 가진 정신
8 장 : 삶은 계속된다
에필로그
더 읽을 거리

<저자 소개>

제니퍼 마굴리스(Jennifer Margulis, Ph.D)는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Fulbright 장학금의 수혜자이며 인기 있는 연사이다. 저자는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에 글을 기고 하고 있으며 세 권의 저작으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THE TEN TYPES OF HUMAN
가제 : 인류의 10가지 초상 - 우리는 누구이며, 누가 될 수 있는가?
저자 : Dexter Dias
출판사: Windmill Books; Reprint Edition
발행일: 2018년 4월 19일
분량 : 848 페이지
장르 : 인문

*** " 인류의 아주 특별한 초상" - 「가디언」**
*** "실제 사례들과 최신 과학 연구를 혼합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환상적인 논픽션 작품" - 찰스 두히그**
***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인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잠재적 본성을 가진 존재인지 탐구하는 책**

대체 인간은 왜 다른 인간을 해치는 것일까? 영국 왕실 고문 변호사이자 판사인 저자인 덱스터 디아즈는 이 책에서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성매매범, 성 범죄자들, 보스니아의 한 거리에서 휘파람을 불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이제 경력의 막바지 시기에 접어든 한 여성,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먼저 독자들을 홉스주의적 잔인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만나 탄생한, 아이티 대지진 후 락트인 증후군 (locked-in-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몸의 운동 기능이 마비된 상태)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의 거실로 인도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염산 테러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성, FGM(female genital mutilation, 여성 할례)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여성, 폭력을 겪으며 마음에 병을 얻게 된 한 남자 등 끝내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피해자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디아즈는 이 일화들과 10가지 비유를 통해 인간 행동 유형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를 들어 그가 분류한 유형 중 하나인 '고통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가 가나에서 만난 두 노예 소년들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유형이다. 한편 '외면자 유형'은 비단 인간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의 집단에도 존재하는데 어떤 망둥이들은 서로의 행동을 계속해서 감찰하고 왕따까지 시킨다. 그 다음으로 '공포 조련자 유형'은 우리가 처한 숙명인 죽음을 매일 의식하고 그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유형이다. 저자는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법정에서 내전 현장, 콜럼버스에서 아동 군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정을 떠났다. 최첨단 신경 과학, 사회 심리학 및 인권 연구를

결합한 이 책은 우리 인간 안에 숨겨진 자아를 찾아가는 아주 참신하고도 도발적인 탐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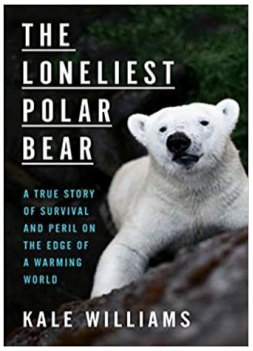
<목차>

프롤로그
1부: 고통을 인지하는 사람
논쟁 거리
21,000
여기에 용이 있다
더 완전한 어둠
내가 눈이 멀었을 때
효과적인 투명성의 규칙
연민에 관한 인지 비용
약속
망각의 텅 빈 얼굴
(이하 생략, 총 10부로 구성)

<저자 소개>

덱스터 디아스 QC(Dexter Dias QC)는 인권 변호사이자 판사이며 캠브리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방문 연구원이다. 그는 영국 왕실 고문 변호사로서 인권, 살인, 테러, 반 인도적 범죄 및 대량 학살과 관련된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여성 할례)에 대한 조사 의회 의장과 인권 보고서 공동 집필을 맡았으며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한 UN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브리핑 했다. 또한 그는 현대 노예, 인신 매매 및 폭력에 대한 생존자들을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무료 변호를 맡고 있다.

제목 : THE LONELIEST POLAR BEAR
가제 : 노라,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북극곰
저자 : Kale Williams
출판사: Sphere
발행일: 2021년 3월 2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기후, 동물



*** 기후위기가 가져온 재앙, 아기 북극곰 '노라'와 노라의 가족들,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한 한 사람에 관한 가슴 아프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케일 윌리엄스는 포틀랜드의 오레곤 동물에서 약 일 년 동안 살았던 두 살짜리 북극곰 노라의 삶을 이 책에 기록했다. 그는 사진 작가와 영상 제작자와 함께 세 개의 주에 있는 동물원을 방문했고 알래스카로 떠나 노라의 혈통을 추적하고 노라와 노라의 가족, 이웃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취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2016 년부터 10 월부터 시작된 저자와 사육사, 수의사 및 동물 행동 전문가들 간의 100 시간이 넘는 인터뷰가 담겨 있다.

콜럼버스의 한 동물원, 출산 후 6 일 만에 엄마 북극곰 오로라는 동물원 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신의 새끼 곰 노라를 홀로 두고 외면했다. 오로라는 몇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자신의 새끼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결국 노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로 했다. 당시 노라는 털도 없었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급격히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다. 노라를 몇 주간 돌보고 있던 수의사들과 사육사들은 더 이상 노라의 운명을 어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작은 아기 곰을 구하기 위해 24 시간 내내 매달렸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동물 중 하나인 그 곰을 직접 기르기로 한 것이다. 사실 인간들은 북극곰에게 거의 가까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북극곰과 인간은 꽤 오랜 세월 동안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사실 노라가 태어나기 30 여 년 전 노라의 아빠 나누크는 이누피아크(Inupiat, 북알래스카 원주민) 사냥꾼 때문에 엄마 곰이 죽고 나자 고아가 되었고 그 후 한 동물원에 오게된 것이었다. 나누크의 엄마를 죽인 그 사냥꾼은 '진 아그나부곡' (Gene Agnaboogok)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북미대륙 최서단에있는 알래스카의 웨일즈 마을 근처에서 야생 곰들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다. 해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자 사냥꾼은 물론이고 북극곰들과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들이 기후 변화와 다가오는 기후 재앙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결과 속에서 살아남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정감이 넘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 인류가 그동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환경 착취와 그 사악한 동기를 파헤치고 북극곰들이 직면한 공포

와 위협이 그들만의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기 북극곰 '노라'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가 가져온 영향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동물과 자연의 세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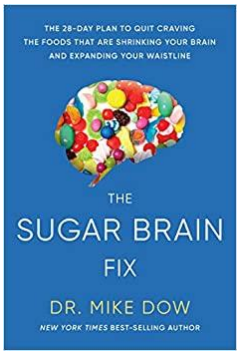
<목차>

제 1 장 : 버려진 아기 곰
제 2 장 : 운명적인 사냥
제 3 장 : 처음으로 먹이기
제 4 장 : 곰
제 5 장 : 문제의 징후
제 6 장 : 개 썰매와 함께 찾아온 죽음
제 7 장 : 결정적인 사건
제 8 장 : 작별
제 9 장 : 타술
제 10 장 : 적응하기
(이하 생략, 총 20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케일 윌리엄스(Kale Williams)는 The Oregonian / OregonLive 의 기자로 과학과 환경에 대해 주로 취재하고 있으며 전에는「San Francisco Chronicle」의 기자로 일한 바 있다. 현재 그는 아내와 함께 두 마리의 개,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

제목 : SUGAR BRAIN FIX
가제 : 슈가 디톡스 - 당과의 전쟁 28일!
저자 : Dr Mike Dow
출판사: Hay House
발행일: 2020년 1월 14일
분량 : 360 페이지
장르 : 건강



*** 설탕이 인간 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며, 당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28일 단기 솔루션을 소개하는 탄수화물에 중독된 현대인들을 위한 필독서이자, 올해의 기대작!**
*** "설탕은 우리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뇌에도 해롭다. 저자가 만든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동 변화와 맛있는 레시피의 강력한 조합으로, 설탕으로 가득 찬 뇌를 회복하고 제 기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The Sugar Impact Diet』의 저자, JJ 버진**

현재 설탕과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평범한 현대인이라면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복잡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설탕은 주변 친구들이 당장 헤어지라고 뜯어말리는 나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몇 번이나 우리는 설탕을 멀리하려 했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체감했을 것이다. 우리 가까이에는 늘 설탕이 있었고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설탕이 함께 했다. 누구나 설탕과 연인 대신 가끔 보면 반가운 그저 '친구 관계'로만 지내고 싶었지만 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설탕은 '인공 감미료'라는 말로 모습을 감추고 있거나 성분 표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탕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밀가루나 곡물로 된 음식들은 몸 속에서 분해 되면 당으로 모습을 바꾼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설탕은 역시 나쁜 친구인 지방과 친하게 어울리기 시작했다. 설탕이 있는 곳에는 나쁜 지방이 있고 건강에 해로운 모든 가공 식품에는 어떤 형태로든 설탕과 나쁜 지방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방은 나쁜 지방인지 착한 지방인지 더더욱 가리기 힘들다. 좋은 지방이라 불렸던 코코넛 오일조차 어떤 경우에는 나쁜 지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총체적으로 설탕과 지방의 문제는 우리의 건강을 합심하여 망가뜨리게 된다. 유명 뇌 건강 전문가인 저자는 전작 『Diet Rehab』의 최신 개정판인 바로 이 책에서 설탕이 뇌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체내에 설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 물질을 방출하는데 이는 자꾸자꾸 더 많이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우리의 허리둘레는 증가시키고 뇌는 수축시켜 버린다고 한다. 뇌가 수축되면 해마가 작아지고 기억력 문제, 우울증, 체중증가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뇌를 수축시키는 음식에 중독되어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국식, 서양식 식단이 우리의 뇌와 신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

지 소개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식단은 설탕과 나쁜 지방이 제거된 건강한 음식들과 키토 (keto, 인슐린을 분비하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체내 지방을 사용해서 케톤체를 생성하게 하는 고지방 식이요법)에서 영감을 받은 지중해 식단을 기반으로 한 28일 완성 식단과 행동 변화를 통한 점진적 해독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 몸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부족한 이유와 맛있는 요리법, 보충제를 사용하여 설탕과 나쁜 지방에 대한 욕구와 싸우는 방법, 인지 행동 치료 및 자기 최면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 다른 기술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건강서이다.

<목차>

소개: 설탕 - 상호 의존적인 관계
1부: 슈가 브레인에 관하여
1 장: 슈가 브레인의 진화
2 장: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3 장: 음식 중독이 슈가 브레인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과 그 반대의 경우
4 장: 점진적 해독의 비밀
2부: 서양식 식단과 우리의 뇌
5 장: 불안감: 세로토닌을 향한 허기
6 장: 파란색 느낌: 도파민을 향한 탐욕
7 장: 무력감: 모든 것에 대한 굶주림
8 장: 간헐적 단식의 비밀
(이하 생략, 총 4부 15장)

<저자 소개>

마이크 도우(Mike Dow) 박사는 심리 치료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뇌 건강 전문가이다. 그는 Good Morning America를 비롯한 유명 TV 쇼에 자주 출연하고 있으며 결혼 및 가족 치료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그는 매주 팟 캐스트 The Dr. Mike Show를 진행하고 있다.

제목 : 50 ACTIVISTIES TO KICKSTART YOUR MEETING
가제 : 즐거운 회의 문화를 위한 50가지 아이디어
저자 : Sivasailam Thiagaraja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 어떤 종류의 회의에서든 창의성을 높이고 협업을 높이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줄 책.**

저자인 시바세일럼 티아가라얀 박사는 효과적인 그룹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이다. 그는 세계 유수의 조직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시키기로 유명하다. 그는 이 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룹 성과 지원'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는데 이는 즉, 회의 참가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구성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미 인증 단계가 끝난 활동들을 뜻한다.

그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들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주도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그는 회의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회의 참가자들 역시 회의를 통해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회의들이 계속 반복되면 회의 주도자는 물론 구성원들 모두 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게 되고 점점 조직의 사기까지 저하되면서 조직과 팀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료도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 넘치는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 역시 점차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에 있는 활동들은 결코 기계적인 따분한 활동들이 아니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동들이며 구성원들이 협업을 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행동 지침들이다. 이 활동 중에는 작게는 2명에서부터 시작해 크게는 200명 혹은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단이든, 어떤 규모의 회의에든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는 이 활동들을 통해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포용성이 확고히 자리 잡은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생산적이며 회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활동들은 다름 아닌,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게임들과 시뮬레이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는 활동들이다. 그는 이 활동들을 통해 효율적인 회의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회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낙관론 생성, 비생산적인 회의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 그룹 회의의 규칙 및 규칙에 동의하는 법, 다양한

회의에서 포용성을 발전 시키고 편견을 최소화하는 법, 효과적인 아이디어 전달 및 제시법, 개선된 회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공동 작업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그 누구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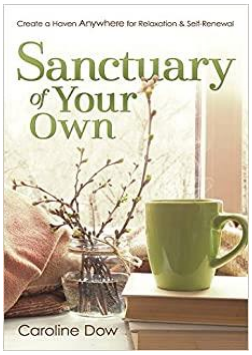
기타 조직의 리더, 회의 진행자, 강사 및 관리자 등 창의력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 개발의 중심이 될 회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목차>

1장. 기억에 남는 회의
2장. 소원
3장. 축소
4장. 속삭임
5장. 지루하고 쓸모 없는
6장. 낙천주의
7장. 최악의 두려움
8장. 이 회의는 취소합시다.
9장. 역기능만 있는 회의
10장. 걱정
11장. 기본 규칙
(이하 생략, 총 5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시바세일럼 타이아가라얀(Sivasailam Thiagarajan)은 Thiagi Group 소속 과학자로 효과적이고 즐겁게 인간의 수행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주로하고 있다. 그의 주요 고객은 AT & T, Chevron 및 Intel과 같은 선도적인 조직들이며 그는 다국적 협력 및 조직의 적극적인 학습 전문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제목 : SANCTUARY OF YOUR OWN

가제 : 당신은 어디서 쉬나요?: 나만의 안식처 만들기

저자 : Caroline Dow

출판사: Llewellyn Publications

발행일: 2020년 1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처세

*** 비좁고 복잡한 일상, 수많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찾아갈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 피난처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나 혼자만 오롯이 누릴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일, 복잡한 퇴근길, 가족, 끝없이 가득한 해야 할 일들의 목록들, 그리고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부터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피난처 말이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다.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일기를 쓰며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쉴 곳.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계발, 명상, 기도 혹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저자 캐롤라인 도우는 만약 위와 같은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들이라면 이제는 그저 꿈꾸는 것에서 물러나 직접 자신만의 안락한 성소를 만들어 보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이 공간은 결코 종교적인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공간들이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인식의 힘을 활용하고 나의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집 전체, 방 한구석, 정원, 발코니 혹은 호숫가, 공원, 해변, 숲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직장의 한 구석 차 안, 잠시 머무는 호텔방 등 우리의 상상만큼이나 무궁무진 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정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신성한 느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평온과 안락함, 기쁨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들에 대해 알려준다. 우리가 넓고 화려한 집에 살든 가난하고 작은 동네에서 살든지 우리만의 성소를 만드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저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생각 보다 훨씬 더 많이 넓고 열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오감과 의지의 힘을 활용해 가정이나 영적인 기초 바닥이 필요한 곳에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친절히 일러주는 명상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더 깊은 평안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나의 개성, 관심과 흥미, 문화적 배경, 깊은 영성을 표현하는 방법 더 나아가 자연의

세계를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근차근 커다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목차>

서문: 마음의 집
경계
이 책에 대하여
모든 삶의 단계를 위한 성소
1장. 당신의 감각과 당신
청각
후각
촉감
미각
시각
정화 의식, 피난처 정화
(이하 생략, 총 1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캐롤라인 도우(Caroline Dow)는 대학에서 강의 중이며 지난 수년간 문화 트레이너 및 평가자로 일해왔으며 30년 동안 약초를 연구해왔다. 그녀는 성공적인 허브 배송 회사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워크샵을 열고 있다.